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체육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들의 감정반응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박영찬, 고의석*
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The Effects of Instructor's Non-verbal Communication on High School Student Athletes' Emotional Reaction and Self-efficacy

Young-Chan Park, Wi-Sug Ko*

Department of Sport & Leisure Studies, Daegu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체육고등학교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학생운동선수들의 감정반응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자는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S시와 D시에 소재한 2개의 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체육특기생 258명을 표집 하였다. 총 184부를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SPSS 22.0 프로그램과 22.0 AMOS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학생운동선수들의 감정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운동선수가 경험하는 감정반응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학생운동선수들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운동선수가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경험하는 감정적 반응은 자기효능감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감정반응,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성별, 운동경력별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instructor's non-verbal communication, emotional reaction, and self-efficacy. By using convenience sampling method of non-provability sampling, 258 student athletes from S and D cities were selected for a questionnaire survey. The 184 returned surveys were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rough SPSS 22.0 and AMOS 22.0 statics program.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structor's non-verbal communica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emotional reaction of high school student athletes. Second, high school student athletes experiencing emotional reactions by instructor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self-efficacy. Third, instructor's non-verbal communication does not influence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 athletes directly. Fourth, emotional reactions of high school student athletes experienced by instructor's non-verbal communication have a mediating effect on self-efficacy. Fifth, neither gender nor exercise period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verbal communication, emotional reactions, and self-efficacy.

Keywords :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High school student athlete, Non-verbal communication, Emotional reaction, Self-efficacy.

1. 서론

1.1 분석결과

학생운동선수들이 심리적으 로 자신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학생운동선수들에게 코치와의 매일 반복되는 훈련에서 오가는 대화들 속에는 익숙한

*Corresponding Author : Wi-Sug Ko(Daegu Univ.)

Tel: +82-53-850-6098 email: psymentor@daegu.ac.kr

Received October 24, 2016

Revised (1st November 29, 2016, 2nd December 7, 2016)

Accepted December 8, 2016

Published December 31, 2016

표정과 단어들, 그리고 비슷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의사 표현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매우 현실적이며, 목표지향적이다. 이러한 표현들과 주변 환경은 자아 성숙이 필요한 시기에 놓인 그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다가와 자신감을 상실하기 쉬우며, 자신 스스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되기 전에, 자칫 목적을 위해 훈련만 해야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역할만 주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인간관계의 기초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며, 그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의미의 공유’이기에[1], 본 연구에서는 훈련이나 일상에서 오고가는 대화의 표현 속에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열쇠가 숨어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2]. 이 중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의 정보적 역할을 하는 언어적 수단 이외의 신체행위(제스처), 얼굴의 표정, 자세, 목소리, 공간, 옷차림 등을 포함하는 모든 소통 방식을 의미하며[3],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느낌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더 정확하기 때문에 감정 상태와 태도를 전달하는 주요한 통로가 된다[4]. 즉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내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5]. 감정이 내면에서 느껴지는 것이라면 반응은 그 감정에 따라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행위 같은 것이다. 감정이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는 것으로 어떠한 지각과 더불어 생기는 쾌감, 불쾌감 등을 말하는데, 신체 내에 막연하게 느껴지는 쾌감, 불쾌감, 공포감, 피로감과 같은 생리 감정과 어떤 일에 대한 분노나 걱정하는 것과 같이 동기에 의하여 반응성으로 생성되는 심적 감정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반응은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선유경향(사람들이 특정 사실에 대하여 미리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서, Palmer & Simmons[6]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언어와 함께 유년시절에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위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을 교감(교류)하는 비언어적 표현을 배운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은 그들이 언어를 배우는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고 하며[1], 비언어적 요소를 대화에 혼합하여 친밀함, 긴박함, 관련성 및 우세 등의 특정한 사

회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이용된다고 하였다[7].

체육고등학교 코치들은 기본기에서부터 실전을 위한 전략까지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학생운동선수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 때 학생운동선수들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코치의 언어적·비언어적 요소 모두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특히 코치들의 신체언어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 이외에 주로 언어적 측면의 내용을 설명하는 반복, 보완, 강조 등의 행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Hinde[8]는 비언어적 표현이 암시적이거나 모호한 언어적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 상대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로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우리는 신뢰하거나 친밀함과 호감을 가진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따라하게 된다. 상대방이 웃으면 같이 웃게 되고 반대로 상대방의 우는 모습에는 슬픈 표정이 연출된다. 즉 사람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한 사람의 감정상태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다[9]. 이처럼 코치가 지도상황에서 언어적으로 조직적인 사고력과 분명하고 쉬운 어휘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 못지않게 비언어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단어를 선택하였거나 소통과정의 잡음 때문에 부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었거나, 메시지를 수신자가 마음대로 해석할 경우[10], 이로 인해 오해, 불신, 갈등 등의 감정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11].

구체적인 예를 들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요소 중 하나인 의사언어(paralanguage)는 실제적 대화는 아니지만 대화중 사람의 다양한 소리를 탐구대상으로 한 것으로[12], 음조의 범위, 입술의 조절, 리듬의 조절, 템포 등에 의해 나타나는 음질(voice qualities), 웃음, 울음, 하품과 같은 발성인자(vocal character), “응”, “아하”, “홍”과 같은 동의나 만족감, 경멸이나 불신을 나타내는 소리와 대화중의 짧은 침묵 등으로 구성된다. ‘예’라는 하나의 의사언어로도 노여움, 무관심, 동의, 도전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13], 한국어의 운율(韻律) 중에서는 운소(韻素, prosodeme)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강세, 고저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런 어감(語感)의 표현은 표준어뿐만 아니라 방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14]. 예를 들어 강조를 위한 의미초점에 화자의 의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경우 그 의미초점이 놓이는 음절에 prominence(突出強勢)가 놓이며[15], 동일한 문장이라도 억양에 따라 화자의 감정과 태도가 달리 전달된다[16]

{‘학교에 갔어.’라는 동일한 문장이라도 억양의 종류에 따라 ‘단정적이고 냉점함(수평조), 부드럽고 친절함(낮내림조), 흥미있음(높은수평조), 놀람(높내림조), 화남(내리오름조), 경멸함(오름내림조)’ 등의 다양한 태도가 전달된다고 한다}는 논의들을 참고할 수 있다. 즉 의사언어는 수신자에게 말하도록 격려하거나 상호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내용의 강도,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17]. 또한 발신자의 개성과 감정뿐만 아니라 수신자의 이해 정도나 설득에도 영향을 미친다[18,19]. 이러한 의사언어는 서비스 산업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할 때의 음고(pitch)와 음조(voice tone)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자신감을 확인한다[1]. 즉 음고와 음조는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능력과 사회성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목소리의 톤(음고)은 감정을 표현할 때 이해와 설득력을 높여 신뢰감과 자신감을 형성 할 때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코치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학생운동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서감염이론(emotional contagion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서감염은 두 사람 간 상호작용과정에서 한 사람의 정서상태가 다른 사람의 정서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감정의 전염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9,20]. 즉 발신자가 보낸 감정 표현을 수신자가 파악하여 발신자가 보낸 감정상태와 유사한 감정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21]. 이러한 정서감염은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 수준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22]. 무의식적 수준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얼굴표현, 목소리 톤, 움직임 등을 통해 표현되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수렴하는 것이라면[23], 의식적 수준은 사회적 정보의 형태로서 감정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사회화 과정이다[24]. 즉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자신의 감정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 상호작용과정에서 자신의 감정표현 혹은 타인의 감정파악은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므로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감정표현이 상대방에게 감염되어 그것과 일치하는 공감현상이 유발되면 정서감염현상이 발생하게 된다[25].

소비자의 감정경험을 연구한 Mano & Oliver[26]는 그들의 연구에서 감정적 반응이 행복의 반대는 슬픔이라는 기존의 일차원설과는 달리,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

2개의 독립적인 차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27]. 현재는 대부분의 감정 연구에서는 감정이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차원설에 동의하고 있으며, Mano & Oliver[26]와 Yoo, Park & MacInnis[28]이 연구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차원이 대표적이다.

환경심리학 관점에서 Mehrabian & Russell[29]은 외부환경 자극에 대하여 유기체가 보이는 반응을 모형으로 제시하였는데, 유기체라는 중간과정을 감정상태(emotion states)로 개념화하여 매장의 환경적 자극이 감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감정상태가 매장에의 접근 및 회피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극유기체반응(SOR: Stimulus-Organism-Response)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감정을 유발시키는 환경적 자극에 대한 마케팅 분야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개인의 감각적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경험론적 인식론의 맥락에서 인간을 탐색한 사상가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가 있었다. 그의 저서 How we think[30], Democracy and Education[31], Experience and Education[32]등을 통해, 인간은 세계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을 성장, 갱신해 가는 유기체적 존재로서, 소위 일원론적 관점을 설명하였다. 그는 저서 How we think[29]에서 반성적 사고에 함의된 앎의 과정과 반성적 사고 단계에서, 인간은 경험에 의한 사고(empirical thinking)와 과학적 사고(scientific thinking)라는 분석과 종합의 과정을 거치는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를 통해 개인에게 진정한 의미로서의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변형시키는 교변작용(transaction, 橋邊作用: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하는 경험 속에서 반성이라는 탐구 과정을 통해 자신과 경험을 결합시키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애초에 갖고 있었던 하나의 가설을 개인의 지식으로 변형·체화시키는 것을 의미)[33]의 과정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Bandura[34]에 의하면 자기반성은 인간의 가장 독특한 능력으로, 자기 참조적 사고를 통하여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나 행동을 조절하고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자기평가는 “통합적 상황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행동들을 조정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서 효능감을 의미한다.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은 몇 가지 방식으로 개인의 선택과 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들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은 자신이 능

력이 있다고 믿고 확신하는 과제를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과제는 피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자아 신념(self-belief)은 개인의 경험 하에서 작용하고, 또 삶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조절함으로써 방법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성취 수준에 강한 결정 변인으로 작용한다. 자기 효능감은 Bandura[35]의 저서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에서 시작된 것으로, 개인의 효능 신념은 인간 힘의 중심이 되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36]. 안정적인 개인차 변수로서의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의 개념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수행 수준을 잘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34]. 사회인지이론[34]에 따르면, 인간의 동기와 행동은 미래를 어떻게 예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이 예견 조절 기제는 다음 세 가지의 기대와 연관이 있다. (a) 개인적인 행동과는 무관한 환경 요인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황 결과 기대, (b) 개인의 행동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 결과 기대, (c) 기대하는 결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과 관련된 지각된 자기 효능감이 그것이다.

훈련의 과정에서 코치의 비언어적 요인들에 의해 어떤 수행의 피드백이 긍정적 감정 반응에 의해 성공경험으로 인식이 되면 학생운동선수들은 내재적 피드백 과정(혹은 반성적 사고 과정)을 통해 그 수행을 법칙 추상화시키거나 자신만의 운동 프로그램을 학습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감정적으로는 학생운동선수들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코치의 지도방법, 즉 해당 기술의 지도방법, 연습방법, 피드백을 통한 주의 집중법 등은 선수 고유의 운동 프로그램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능력, 성숙도, 경험, 운동지능, 인지지능, 주의능력, 동기 등의 요인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수 자신만의 루틴을 형성하게 되고 운동 프로그램(인지적 기술 습득 절차 혹은 피드백을 통한 자신만의 기술향상 패턴)이 좋은 지도에 의해 견고해 질수록 그 선수의 자기효능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체육고등학교 코치들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로 인해 학생운동선수들의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것을 통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측면을 이해하여, 장기적으로 실제적인

지도현장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1.2 연구가설

- H1.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감정반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감정반응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감정반응은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 H5.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감정반응, 자기효능감은 성별/운동경력별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은 S특별시 및 D광역시에 위치한 체육고등학교 2곳의 재학생 중 총 25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74부를 제외한 184부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variables		n	ratio(%)
Gender	male	115	62.5
	female	69	37.5
grade	1st	84	45.7
	2nd	24	13.0
	3rd	76	41.3
exercise period	2 years or under	30	16.3
	3 to 5years	91	49.5
	5 to 8years	41	22.3
	9 years or above	22	12.0
Total		184	100.0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측정하기 위하여 Sundaram & Webster[1]의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김상희[37]가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연구조사 설문지로 사용하였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신체언어를 묻는 5문항,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a measure	non-verbal communication				emotional reaction		self-efficacy		
	kinesics	proxemics	para language	physical appearance	positive emotional reaction	negative emotional reaction	self regulation	confidence	task difficulty preference
	early		final		early	final	early		final
n	13		10		10	8	24		9
χ^2	147.210		39.176		67.887	27.371	652.812		32.328
p	.000		.098		.000	.096	.000		.119
CMIN/DF	2.495		1.351		1.997	1.441	2.622		1.347
RMR	.031		0.19		.034	.024	.090		.040
GFI	.897		.958		.934	.965	.764		.963
AGFI	.841		.921		.893	.934	.716		.930
CFI	.954		.993		.983	.995	.742		.985
NFI	.927		.973		.967	.983	.646		.946
IFI	.955		.993		.983	.995	.747		.985
RMSEA	.090		.044		.074	.049	.094		.044

공간언어를 묻는 2문항, 의미언어를 묻는 3문항, 신체적 외모를 묻는 3문항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감정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Oliver[38], Yi[39]의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주현식[40]이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 조사 설문지로 사용하였다. 감정반응 측정은 긍정적 반응 5문항, 부정적 반응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정은[41]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예비척도를 김아영[42]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에서, ‘매우 그렇다’가 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3 자료처리방법

측정모델 평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및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조절효과분석(moderating effects analysis), 간접효과분석(indirect effect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는 체육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선수들의 감정반응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이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보다 단일차원성 검증에 보다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각 측정변수들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 , GFI, AGFI, CFI, NFI, IFI, RMR, RMSEA 값을 사용하였으며, 최종 문항에서 제시된 높은 적합도를 생성하기 위하여 최종 문항에서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인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값 0.4이하를 기준으로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고<Table 3.>, <Table 2.>는 그 결과이다. 최종 분석결과, 카이스퀘어 검정의 p값이 0.098, 0.096, 0.119로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모델이 데이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CMIN/DF 값도 모두 2보다 작게 나타났다. RMR 역시 모두 0.05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고, GFI, AGFI, CFI, NFI, IFI 모두 적합도 기준치인 0.9 이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RMSEA도 모두 0.05보다 낮게 나타나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측정모형의 자료적합도를 보여준다. 그 결과 $\chi^2=264.772$, $DF=216$, $p=0.013$, $CMIN/DF=1.886$, $GFI=0.896$, $AGFI=0.856$, $CFI=0.986$, $RMR=0.030$, $RMSEA=0.035$, $NFI=0.930$, $IFI=0.986$ 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χ^2) 검정은 그 값이 크면 모델이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본 연구의 $\chi^2=264.772(p=0.013)$ 로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카이제곱 검증에서 기각되었다는 것은 모델을 채택할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적합도 지수를

Table 3. SMC(Square Multiple Correlation) of Observed variables

Concept		SMC(Square Multiple Correlation)														
non-verbal communication	kinesics	variable	kinesics 1			kinesics 2			kinesics 3			kinesics 4		kinesics 5		
		early	.739			.680			.432			.617		.449		
		final	.796			.632			-			.635		-		
	proxemics	variable	proxemics 1			proxemics 2										
		early	.735			.793										
		final	.711			.819										
	para language	variable	paralanguage 1			paralanguage 2			paralanguage 3							
		early	.673			.829			.779							
		final	.691			-			.727							
	physical appearance	variable	physical appearance 1			physical appearance 2			physical appearance 3							
		early	.791			.835			.629							
		final	.797			.828			.632							
emotional reaction	positive emotional reaction	variable	positive emotional reaction 1			positive emotional reaction 2			positive emotional reaction 3			positive emotional reaction 4		positive emotional reaction 5		
		early	.808			.843			.748			.712		.678		
		final	.837			.853			-			.666		-		
	negative emotional reaction	variable	negative emotional reaction 1			negative emotional reaction 2			negative emotional reaction 3			negative emotional reaction 4		negative emotional reaction 5		
		early	.782			.817			.906			.882		.873		
		final	.782			.818			.906			.883		.872		
self-efficacy	self-regulation	variable	s-r 1	s-r 2	s-r 3	s-r 4	s-r 5	s-r 6	s-r 7	s-r 8	s-r 9	s-r 10	s-r 11	s-r 12		
		early	.380	.552	.512	.470	.217	.537	.225	.299	.244	.267	.333	.203		
		final	-	.707	.617	.609	-	-	-	-	-	-	-	-		
	confidence	variable	confidence 1		confidence 2		confidence 3		confidence 4		confidence 5		confidence 6		confidence 7	
		early	.443		.364		.605		.111		.425		.481		.558	
		final	-		-		.526		-		.443		.492		.666	
	task difficulty preference	variable	task difficulty preference 1			task difficulty preference 2			task difficulty preference 3			task difficulty preference 4		task difficulty preference 5		
		early	.526			.000			.011			.426		.438		
		final	-			-			-			.638		.454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모델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GFI, AGFI, CFI, NFI, IFI는 0.9이상, RMR는 0.05이하, RMSEA는 0.1이하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GFI는 0.9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고, AGFI도 0.9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GFI과 AGFI는 표본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inconsistencies)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comparative fit index)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CFI 지표값이 0.986으로 높게 나타나 모델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측정항목들과 개념간의 비표준화 요인부하값과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 값을 보면,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간에 대한 모수추정치가 모두 0

보다 상당히 큰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추정치에 대한 C.R. 값도 모두 2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그리고 SMC값은 0.4이상의 값을 보여 잠재변수는 해당 측정변수들의 변량을 상당히 잘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5.>는 측정모델을 분석한 후, 해당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이다. 측정모델의 타당성은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집중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든 변수의 분산추출의 평균 (variance extracted: VE)값을 구한 결과, 모든 변수가 0.5 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판별타당성은 평균분산추출(AVE)을 통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 <Table 5.>의 안쪽 요인별 데이터는 상관계수(correlation)의 제곱 값으로서, 이 값이 평균분산추출

Table 4. Measurement model e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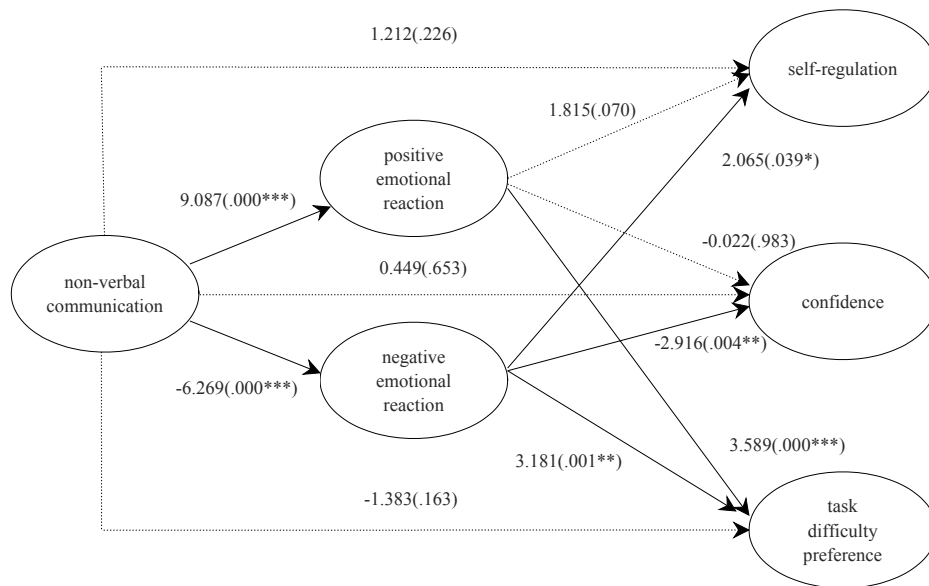
concept		observed variable	factor loading	standardized factor loading	S.E.	C.R.	SMC	reliability	
non-verbal communication	kinesics	kinesics 4	1.000*	0.797	-	0.000*	0.635	$\alpha = 0.773$	
		kinesics 2	0.804	0.793	0.067	11.943	0.629		
		kinesics 1	0.996	0.894	0.071	14.027	0.799		
	proxemics	proxemics 2	1.000*	0.902	-	0.000*	0.814	0.865	
		proxemics 1	0.904	0.846	0.058	15.476	0.715		
	para language	para language 3	1.000*	0.850	-	0.000*	0.723	0.900	
		para language 1	1.096	0.834	0.078	14.037	0.696		
	physical appearance	physical appearance 3	1.000*	0.793	-	0.000*	0.629	0.847	
		physical appearance 2	1.104	0.917	0.078	14.066	0.840		
		physical appearance 1	1.156	0.887	0.085	13.612	0.787		
emotional reaction	positive emotional reaction	positive emotional reaction 1	1.000*	0.913	-	0.000*	0.834	0.940	
		positive emotional reaction 2	0.989	0.922	0.051	19.476	0.850		
		positive emotional reaction 4	0.933	0.822	0.061	15.399	0.675		
	negative emotional reaction	negative emotional reaction 5	1.000*	0.935	-	0.000*	0.875	0.966	
		negative emotional reaction 4	1.019	0.940	0.041	25.085	0.883		
		negative emotional reaction 3	1.010	0.951	0.038	26.340	0.904		
		negative emotional reaction 2	0.932	0.904	0.043	21.836	0.817		
		negative emotional reaction 1	0.900	0.883	0.044	20.337	0.781		
	self-efficacy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2	1.000*	0.840	-	0.000*	0.706	0.825
			self-regulation 3	0.863	0.789	0.134	6.420	0.623	
confidence		confidence 3	1.000*	0.691	-	0.000*	0.478	0.844	
		confidence 7	1.253	0.900	0.271	4.614	0.810		
task difficulty preference		task difficulty preference 4	1.000*	0.730	-	0.000*	0.533	0.723	
		task difficulty preference 5	0.930	0.737	0.163	5.716	0.544		
measurement model goodness of fit			$\chi^2=264.772$, $DF=216$, $p=0.013$, $CMIN/DF=1.886$, $GFI=0.896$ $AGFI=0.856$, $CFI=0.986$, $RMR=0.030$, $RMSEA=0.035$ $NFI=0.930$, $IFI=0.986$						

Table 5. Correlation between the construct

variable name	kinesics	proxemics	para language	physical appearance	positive reaction	negative reaction	self-regulation	confidence	task preference
Non-verbal communication	kinesics	1.00							
	proxemics	.789	1.00						
	para language	.867	.878	1.00					
	physical appearance	.475	.518	.548	1.00				
Emotional reaction	positive reaction	.557	.433	.489	.338	1.00			
	negative reaction	.281	.133	.188	.225	.227	1.00		
Self-efficacy	self-regulation	.081	.068	.029	.056	.067	.000	1.00	
	confidence	.052	.023	.036	.053	.040	.110	.002	1.00
	task preference	.001	.002	.000	.000	.058	.035	.171	.064
variance extracted: VE	.688	.765	.709	.752	.786	.852	.664	.644	.538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885	.903	.866	.920	.924	.960	.855	.745	.720

Table 6. The test results of hypothesis and indirect effect.

hypothesis (path)	coefficient	C.R.	p	indirect effect	
				coefficient	p
non-verbal communication → positive emotional reaction (H1)	1.102	9.087	.000***		
non-verbal communication → negative emotional reaction (H2)	-.888	-6.269	.000**		
positive emotional reaction → self-regulation (H3)	0.217	1.815	.070		
positive emotional reaction → confidence (H4)	-0.003	-0.022	.983		
positive emotional reaction → task difficulty preference (H5)	0.466	3.589	.000***		
negative emotional reaction → self-regulation (H6)	0.142	2.065	.039*		
negative emotional reaction → confidence (H7)	-0.246	-2.916	.004*		
negative emotional reaction → task difficulty preference (H8)	0.229	3.181	.001*		
non-verbal communication → self-regulation (H9)	0.232	1.212	.226		
non-verbal communication → confidence (H10)	0.092	0.449	.653		
non-verbal communication → task difficulty preference (H11)	-0.260	-1.383	.167		
non-verbal communication → emotional reaction → self-regulation (H12)	0.232	1.212	.226	.256	.011*
non-verbal communication → emotional reaction → confidence (H113)	0.092	.449	.653	.274	.009*
non-verbal communication → emotional reaction → task difficulty preference (H14)	-.260	-1.383	.167	.152	.115
measurement model goodness of fit	$\chi^2=164.193$, $\chi^2/df=1.293$, $p=.015$, $GFI=0.916$, $AGFI=0.887$, $CFI=0.985$, $RMR=0.052$, $RMEA=0.040$, $NFI=0.939$, $IFI=0.985$				
p<0.05* p<0.01** p<0.001***					



a) C.R. (p)
 b) p<0.05* p<0.01** p<0.001***

Fig. 1. The test results of hypothesis

값(AVE)보다 작으면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Table 6.>는 최종 제안모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의 추정치 결과와 조절효과 검증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자료적합도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는 $\chi^2=164.193$, $\chi^2/df=1.293$, $p=0.015$, $GFI=0.916$, $AGFI=0.887$, $CFI=0.985$, $RMR=0.052$, $RMEA=0.040$, $NFI=0.939$, $IFI=0.985$ 로 나타났다.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학생운동선수의 감정반응,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H1>, <H2>, <H5>, <H6>, <H7>과 <H8>의 검증결과, <H1>의 계수값이 1.102, C.R.=9.087, <H2>은 계수값이 0.382, C.R.=2.136, <H5>은 계수값이 0.466, C.R.=3.589, <H6>은 계수값이 0.142, C.R.=2.065, <H7>은 계수값이 -0.246, C.R.=-2.916, <H8>은 계수값이 0.229, C.R.=3.181으로 각각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다. 즉,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학생운동선수들의 긍정적 반응을 높여주고, 부정적 감정반응은 감소시켜주며, 학생운동선수들의 이런 긍정적 반응은 과제선호성을 높이고 부정적 반응에서는 자기조절성을 높이며, 자신감을 낮추지만 과제선호성을 높이는 선행변수로 밝혀졌다.

간접효과 유무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경유하여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자기조절요인(H12)으로의 간접효과는 p값이 0.011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자신감요인(H13)에서도 p값이 0.009으로 나타나 경로에서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는 남녀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조절효과 검증결과이다. 표를 보면, 학생운동선수의 남녀학생의 경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긍정적/부정적 감정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학생 모두 긍정적 반응이 자기효능감의 자기조절력과 과제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학생 모두 부정적 감정반응이 과제선호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부정적 감정반응이 자신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여학생은 부정적 감정반응이 자기조절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학생 모두 긍정적 감정반응에서는 과제선호 보다 자기조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 감정반응에서는 과제선호보다 남학생은 자신감에, 여학생은 자기조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학생별 조절효과 검증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결과, 조절효과 검

Table 7. regulation effect verification path coefficient on gender

Division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C.R.(p)	C.R.(p)
non-verbal communication → positive emotional reaction	6.913(.000**)	6.146(.000**)
non-verbal communication → negative emotional reaction	-4.637(.000**)	-4.713(.000**)
positive emotional reaction → self-regulation	3.141(.002*)	2.964(.003*)
positive emotional reaction → confidence	-0.168(.866)	0.474(.635)
positive emotional reaction → task difficulty preference	2.505(.012*)	2.490(.013*)
negative emotional reaction → self-regulation	0.747(.455)	2.822(.005*)
negative emotional reaction → confidence	-3.915(.000**)	-0.092(.927)
negative emotional reaction → task difficulty preference	2.874(.004*)	2.112(.035*)
measurement model goodness of fit	$\chi^2=347.402$, $\chi^2/df=1.368$, $p=.000$, $GFI=0.839$, $AGFI=0.783$, $CFI=0.964$, $RMR=0.063$, $RMEA=0.045$, $NFI=0.880$, $IFI=0.965$	

p<0.05* p<0.01** p<0.001***

Table 8. regulation effect verification path coefficient on exercise period

Division	2 years or under	3 to 5 years	6 to 8 years	9 years or above
	C.R.(p)	C.R.(p)	C.R.(p)	C.R.(p)
non-verbal communication → positive emotional reaction	4.041(.000**)	5.748(.000**)	5.735(.000**)	2.097(.036*)
non-verbal communication → negative emotional reaction	-3.074(.002*)	-3.586(.000**)	-3.639(.000**)	-1.677(.094)
positive emotional reaction → self-regulation	1.241(.215)	2.735(.006*)	1.741(.082)	2.612(.009*)
positive emotional reaction → confidence	0.169(.866)	1.249(.211)	1.077(.282)	0.806(.420)
positive emotional reaction → task difficulty preference	1.652(.099)	2.657(.008*)	0.795(.426)	1.269(.204)
negative emotional reaction → self-regulation	0.815(.415)	1.619(.105)	1.242(.214)	0.950(.342)
negative emotional reaction → confidence	-0.974(.330)	-1.685(.092)	-1.306(.192)	-1.315(.188)
negative emotional reaction → task difficulty preference	2.142(.032*)	1.954(.051)	1.061(.288)	-0.416(.678)
measurement model goodness of fit	$\chi^2=895.830$, $\chi^2/df=1.763$, $p=.000$, $GFI=0.729$, $AGFI=0.635$, $CFI=0.867$, $RMR=0.094$, $RMEA=0.065$, $NFI=0.747$, $IFI=0.872$			

p<0.05* p<0.01** p<0.001***

정 유무는 Model Comparison의 p값이 0.05보다 작아야 하는데 이 검정에서는 p<0.116으로 나타나 성별간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조절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Table 8.>은 운동경력별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조절효과 검정결과이다. 표를 보면, 운동경력이 2년 이하부터 3~5년, 6~8년까지 모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긍정적/부정적 감정반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9년 이상 학생운동선수들에게서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긍정적 감정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감정 반응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3~5년 경력 학생운동선수들이 자기조절과 과제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9년 이상 경력 학생운동선수들은 자기조절 요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감정반응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2년 이하 학생운동선수들이 과제선호 요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경력별 조절효과 검정의 측정모델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동경력에 따른 조절효과 검정결과 Model Comparison의 p값은 0.954으로 나타나 운동경력간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조절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체육고등학교 코치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학생운동선수들의 감정반응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

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학생운동선수들의 감정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화, 권민혁[43]은 생활체육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인, 즉 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적 외형 요인이 생활체육 참가자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반응에 각각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원호 외 3명[44]의 연구에서도 에어로빅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참여자의 감정반응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승연[45]의 연구에서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중 표정과 제스처, 대화시 적당한 거리감, 신체접촉, 매력적 외모와 단정한 복장 등은 고객의 감정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수의 연구에서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감정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37,46,47,48,49,50,51,52]. 지도자의 성격이나 감정, 태도의 표현 수단이 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아직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기의 학생운동선수들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심리기술[53]이 필요한 스포츠 세계에서 실제적인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코치가 학생운동선수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상황, 언어 표현만으로 의사전달이 충분할 경우도 있으나 언어 표현의 제한으로 인해 감정의 전달을 충분히 할 수 없을 경우, 즉 단시간에 많은 정보의 획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언어적 단서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읽거나,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야 할 경우가 빈번하기에[54] 이런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의미를 반복, 대체, 강화, 비교 그리고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55]. Harrison[56]은 인적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 중 많은 부분이 언어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얻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언어적 메시지보다 비언어적 메시지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무의식적인 것이며, 이것이 표면화될 때 언어로 전달되기 어려운 진정한 인간 내면적인 상태나 감정적 반응을 그대로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친밀감, 관심과 같은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용되며[7], 이것은 인간관계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Hinde[8], DeVito[13]등은 비언어적 행위가 암시적인

내용이나 모호한 언어적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 상대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단서로서 그 기능이 발휘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시적이며 아주 작은 움직임일지라도 각각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신뢰도가 높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임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언어적인 채널을 통해 긍정적 단서들이 표현되고 비언어적 채널을 통해서 부정적 단서들이 표현되는 경우 의미 해석은 비언어적 행위에 근거하여 전달된 메시지의 진실성을 파악하게 된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과거 비언어적 행동의 대인간, 개인 내적인 기능(*interpersonal and intrapersonal function of nonverbal behaviors*)을 강조한 연구들[57,58]에서 비언어적 행동이 수신자(*addressee*)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주요기능으로부터 더 크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학생운동선수들에게 감정적 인지과정과 내적성숙의 청소년기에 중요한 동기화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위한 올바른 귀인 요인을 강화시켜 나가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둘째, 학생운동선수가 경험하는 감정반응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37]와 박종화, 권민혁[43]의 연구결과들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운동선수들의 부정적 감정반응이 자기효능감의 자기조절과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부정적 감정반응 모두 과제선호성에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훈련방법이나 단기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Bandura[34]는 각 개인은 각자의 사고, 감정, 행동을 어느 정도 조절하게 하는 자기 체계(*self-system*)를 가지고 있는데, 자체적인 인지 및 정서구조를 가지고 기호화되거나 대안적 전략을 계획하거나 자기 행동을 조절하고 자기반성의 능력을 가지며, 또한 자아체계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서 행동을 수용하고, 조절하고,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하위 기능과 참조기제를 제공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 아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에 이르는 개념인 메타인지

(Metacognition)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운동선수 자신의 사고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가능해지면 어떤 것을 수행하거나 배우는 과정에서 어떠한 구체적 활동과 능력이 필요한지를 알고, 이에 기초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하여 적절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긍정적 감정 반응을 유도해 나가야 하겠다.

셋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감정이나 생각, 태도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자기효능감은 자기반성적 사고를 통해 자아체계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서 행동을 수용하고, 조절하고,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하위 기능과 참조 기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윤운성[59]에 의하면 학생들은 정보에 적극적으로 주의 집중하여 조직, 시연, 부호화과정을 통하여 정보를 재조직한다고 한다. 따라서 주어진 환경내의 사회적, 교수적 요소들을 변화시켜나가기에, 학업성취는 끊임없는 통합구성으로서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높은 자기 효능감은 학생들에게 학습을 촉진시키려는 과제에 노력과 지속력을 증가하게 한다. 따라서 학생이 학습 과정을 지각할 때 자기 효능감이 유지되고 동기화 된다. 전에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던 경험이 있었을지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은 부정적인 전 경험을 불식하고 동기화 행동을 지향하게 한다[34]. 성공과 실패 귀인에 대한 경험적 학습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지각하는 교사의 긍정적인 도움(피드백)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낮거나 혹은 높은 학생들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지각은 교사에 의해 성공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켜 성취 결과에 관계없이 수행경험 그 자체로 동기부여 시킴으로 인해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기에, 후일의 성공적 과제를 통해 더 높은 성취기대를 예언할 수 있도록 칭찬이나 격려 속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인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체육고등학교 코치들은 대부분 해당종목의 선수출신들이기에 자기효능감의 정보근원인 수행성취,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와 관련하여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주어지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동기·자기 반성적 사고(자기체계, self-system)의 순환과정의 전문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능력(자

기효능감)을 판단하고 목표지향성과 지속성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허나 학생은 물론 교사에게도 자기 효능감은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59]. 자기 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수업에 영향을 주는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학생의 학습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도와주는 인내력이 부족하며, 보충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도전적인 학습 활동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성공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동기적 효과는 학습을 증진하게 할 수 있는데, 지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부분 중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교사의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표현의 도구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넷째, 학생운동선수가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경험하는 감정적 반응은 자기효능감에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37]의 연구에서 고객이 판매원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경험하는 감정적 반응은 고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가 말하는 내용을 듣고 제공자의 자신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의 음고(pitch)나 음조(voice tone)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자신감을 확인한다[4]. 즉 음고와 음조는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능력과 사회성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목소리의 톤(음고)은 감정을 표현할 때나 이해와 설득력을 높여 신뢰감과 자신감을 형성할 때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에서는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선호하는 목소리 톤인 ‘술’톤을 유지하여 발성하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 Sandaram & Webster[4]는 더 높은 신뢰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추진력을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빠르게(1분당 120~160단어 정도를 말하는 보통속도)말을 하며 더 크게 말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음성 특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길게 멈추지 않고 망설임 없이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신뢰를 안겨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60]. 한편 Scherer[61]에 의하면 적절한 멈춤(분명한 구절을 끊어서 읽는 것)은 듣는 사람의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신뢰와 믿음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스포츠지도하는 상황, 시범을 보이거나 전략, 전술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지시나 팀과 개인 간의 모든 의사소통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지도자의 지속적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의사소통은 학생운동선수들에게 하나의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적 평가로[62]호의적,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선유경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Heider[63]는 균형이론을 통해 개인의 내적 일관성을 설명하였는데, 사람들은 어떤 대상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인지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상들 간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개인의 내적 일관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균형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대상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운동선수들은 지도자에 대한 태도를 일정한 감정선 혹은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때 지도자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운동 기술 등을 지적하면, 즉 태도와 행동 간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면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64]. 인지부조화에 따른 심리적 불편감은 이를 해소하려는 동기로 작용하여[65], 부정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 불일치 패러다임[66]에 근거하여, 부정적 불일치는 긍정적 불일치보다 더 많은 귀인을 자극하고 더 다양한 감정유형과 감정 강도를 가지게 된다[67,68]. 부정적 불일치는 기대와 성과 간의 불일치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서 후회와 실망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 감정의 인지적 평가모형에 따르면 인지는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은 대응 반응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지도자의 성격이나 종목의 특성에 따라 학생운동선수들이 동기부여 되어지도록 이끄는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인의 개별성 혹은 특이성을 계발하여 매력성, 즉 ‘특정대상을 일관성 있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성 혹은 태도’[69,70]을 가지게 된다면,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의 차원[71]의 차원에서, 학생운동선수들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점차 향상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도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운동선수는 훈련의 최종 결과물인 경기결과 예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할 것이다.

다섯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감정반응,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성별, 운동경력별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나 Model Comparison의 P값이 0.954로 0.05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측정모델의 적합도가 만족하여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경

로에서 남녀학생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반응과 부정반응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감정반응이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고, 여학생은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남성언어와 여성언어의 사회언어학적 접근을 살펴본 김귀순[72]의 연구에서, 남녀간의 의사소통 기능의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역사적으로 성 관계의 지배적 성격, 즉 여성의 종속적 위치를 약한 것과 동일시하고 여성의 언어를 남성의 언어보다 열등한 것으로 주장한 Lakoff[73]의 ‘지배 접근방식’보다 남녀간의 힘의 불균형을 반영한다기보다 의사소통 작용에 있어 내재화된 서로 다른 규범이 남녀간에 있다고 주장한 Maltz &orker[74]의 차이 접근방식에서 남성의 대화양식은 경쟁에 바탕을 두는 반면 여성은 협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결과를 설명하는데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도자가 남녀간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차이를 이해(유형선, 2004)하고, 나아가 전문화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은 학생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신체적 훈련의 피드백은 물론, 심리적인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조절효과 검정의 P값을 만족시킨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운동경력별 조절효과 검정에서는 Model Comparison의 P값과 적합도 모두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체육고등학교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학생운동선수들의 감정반응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학생운동선수들의 감정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운동선수가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경험하는 감정반응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운동선수가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경험하는 감정적

반응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감정반응,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성별, 운동경력별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체육고등학교 운동부 선수들로 제한시켰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서울과 대전에 소재한 일부 체육고등학교 운동부 선수만들 대상으로 하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이 잘 들어나는 사투리 개념 등을 제한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그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지도자에 대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 비교를 통한 깊은 통찰이 부족했다는 것도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일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들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설정함은 물론 그 대상들은 전체적인 기술수준과 연령층 고려와 함께 관련 연구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U. R. Kim, S. W. Jang, Non-verbal communication theory. Seoul: Nanam Books, 2004.
- [2] Argyle, Michael(1975). Bodily Communication. N. Y., International Univ. Press, 1975.
- [3] J. Y. Kim, H. C. Joo, I. H. Yun, The Structure Model Among Nonverbal Communication, Instructors Trust and Dance Flow of the Dance Educator. The Korean Society of Dance, 71(3), 1-24, 2013.
- [4] Sundaram & Webster, The role of nonverbal communication in service encounters. Journal of Service Marketing, 14(5), 378-389, 2000.
DOI: <https://doi.org/10.1108/08876040010341008>
- [5] S. Y. Lee, A Study on effect of Customer Emotion and Satisfaction by Hotel Employee's Nonverbal Communication. Korea Hotel Resort Association, 10(2), 139-150, 2011.
- [6] Palmer, M. T. & Simmons, K. B., Communicating intentions through nonverbal behavior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2(9), 128-160, 1995.
DOI: <https://doi.org/10.1111/j.1468-2958.1995.tb00364.x>
- [7] Burgoon, Judee K., Relational Message Interpretations of Touch, Conversational Distance and Posture.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5(4), 233-259, 1991.
DOI: <https://doi.org/10.1007/BF00986924>
- [8] Hinde, Robert A., Non-verbal Commun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 [9] Pugh, S. Douglas, Service with a Smile: Emotional Contagion in the Service Encounter.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5), 1018-1027, 2001.
DOI: <https://doi.org/10.2307/3069445>
- [10] Dodd, Carley H., Dynamic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Dubuque, Wm.C. Brown Company Publishers, 1982.
- [11] Klopff, D. W. and M. S. Park, Cross-Cultural Communication, Seoul: Han Shin Publishing Co, 1982.
- [12] Trager, George L., Paralanguage: A First Approximation. Studies in Linguistics, 13, 1-12, 1958.
- [13] DeVito, Joseph A., Human Communication, 3rd(Eds.), New York: Harper and Row, 1985.
- [14] I. H. Jeong, Expressions of the Nuance and a Type of the Front-vowelization. URIMALGEUL :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57, 55-77, 2013.
DOI: <https://doi.org/10.18628/urimal.57..201304.55>
- [15] B. G. Lee, A Phonosyntactic Description of the Length in Korean. The Society of Korean Linguistics, 15, 11-39, 1986.
- [16] H. Y. Lee, Language Phonetics. thaeaksa Books, 1996.
- [17] Argyle, Michael, V. Salter, H. Nicholson, M. Williams, and P. Burgess, The Communication of Inferior and Superior Attitudes by Verbal and Nonverbal Signals.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222-231, 1970.
DOI: <https://doi.org/10.1111/j.2044-8260.1970.tb00668.x>
- [18] Argyle, Michael,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Behavior, Penguin: Harmondsworth, 1983.
- [19] Burgoon, Judee K., Attributes of the Newscaster's Voice as Predictors of Hi Credibility. Journalism Quarterly, 55(Summer), 276-281, 1978.
DOI: <https://doi.org/10.1177/107769907805500208>
- [20] Verbeke, Willem,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 Contagion of Salespersons: Its Effect on Performance and Burnout. Psychology and Marketing, 14(6), 617-636, 1997.
DOI: [https://doi.org/10.1002/\(SICI\)1520-6793\(199709\)14:6<617::AID-MAR6>3.0.CO;2-A](https://doi.org/10.1002/(SICI)1520-6793(199709)14:6<617::AID-MAR6>3.0.CO;2-A)
- [21] Schoenewolf, Gerald, Emotional Contagion: Behavior Induction in Individuals and Groups. Modern Psychoanalysis, 15(1), 49-61, 1990.
- [22] Barsade, Sigal G., The Ripple Effect: Emotional Contagion and Its Influence on Group Behavior.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7(December), 644-675, 2002.
DOI: <https://doi.org/10.2307/3094912>
- [23] Hatfield, Elaine, John T. Cacioppo, and Richard L. Rapson, Emotional Contag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24] Salancik, Gerald R. and Jeffrey Pfeffer,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to Job Attitudes and Task Desig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3(June), 224-253, 1978.
DOI: <https://doi.org/10.2307/2392563>
- [25] Levine, Laura E. and Martin L. Hoffman, Empathy and Cooperation in 4-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11(4), 533-534, 1975.
DOI: <https://doi.org/10.1037/h0076680>
- [26] Mano. Haim & Richard L. Oliver, Assessing the

- Dimensionality and Structure of The Consumption Experience: Evolution, Feeling and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3), 451-466, 1993.
DOI: <https://doi.org/10.1086/209361>
- [27] Oliver, Richard L., Cognitive, Affective, and Attribute Bases of the Satisfaction Respons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2), 418-430, 1993.
- [28] Yoo, Changjo, Jonghee Park, and Deborah J. MacInnis, The Effects of Store Characteristics and In-Store Emotional Experiences on Store Attitud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43(4), 253-263, 1998.
DOI: [https://doi.org/10.1016/S0148-2963\(97\)00122-7](https://doi.org/10.1016/S0148-2963(97)00122-7)
- [29] Mehrabian, A., & Russell, J. A. (1974). An approach to environmental psychology (pp. 216 -217). USA: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30] Dewey. J., How We Think. Edited by Jo Ann Boydston(1978). John Dewey: The middle works. Vol. 6, Carbondale and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10.
- [31] Dewey. J., Democracy and Education Edited by Jo Ann Boydston(1980). John Dewey: The Middle Works. Vol. 9, Carbondale and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16.
- [32] Dewey. J., Experience and Education Edited by Jo Ann Boydston(1988). John Dewey: The Later Works. Vol. 13, Carbondale and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38.
- [33] C. H. Park, Transaction in Dewey's Theory of Experience.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 21(1), 1-30, 2009.
DOI: <https://doi.org/10.17715/jme.2009.02.20.2.1>
- [34] Bandura, A.,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6.
- [35]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1977.
DOI: <https://doi.org/10.1037/0033-295X.84.2.191>
- [36] U. S. Yun, An Analytic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36(3), 65-82, 1998.
- [37] S. H. Kim, Effect of the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of Salespersons in Service Encounter on Customers' Emotion and Behavioral Intension - Focusing on the Emotional Contagion Phenomenon. *Korean Society of Consumer studies*, 18(1), 97-131, 2007.
- [38] Oliver, R. L., Satisfaction: A Behavioral Perspective on The Consumer. Boston: Irwin Mcgraw-Hill, 1997.
- [39] Y. J. Yi, Cognitive and Affective Priming Effect of The Context for Print Advertisements, *Journal of Advertising*, 19(2), 1990.
DOI: <https://doi.org/10.1080/00913367.1990.10673186>
- [40] H. S. Joo, A Study on the Effect of Image in Nation and Tourism, Attitude Regarding Korea and Visit Intention from LOHAS Korean Wave.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31(4), 301-320, 2007.
- [41] J. E. Cha, A study of for Development a General Self-efficacy Scale. *Psychological Research*, 34, 19-31, 1996.
- [42] A. Y. Kim, A study on the academic failure-tolerance and its correlates.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11(2), 1-19, 1997.
- [43] J. H. Park, M. H. Kwon, The Effects of Instructor's Non-Verbal Communication on Sport Participants' Emotional Reaction and Loyalty. *Korean Society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63, 333-344, 2016.
- [44] W. H. Jo, Y. H. Kim, D. H. Choi, Y. J. Yun, The Effects of aerobics instructors' images and non-verbal communication on learners' emotional reaction and intention to continue exercise.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24(1), 321-339, 2015.
- [45] S. Y. Lee, A Study on effect of Customer Emotion and Satisfaction by Hotel Employee's Nonverbal Communication. *Korea Hotel Resort Association*, 10(2), 139-150, 2011.
- [46] S. K. Kim, H. S. Lee, Effect of Nonverbal Communication of Golf Instructors on the Evaluation of Instructors and Intension to Continuance of Exercise. *Korean Society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59(1), 401-410, 2015.
- [47] J. G. Park, The Effects of Satisfaction at Non-Verbal Communication of Dance Department Instructors on Dance Flow and Dance Achievement.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23(4), 663-674, 2014.
- [48] H. C. Joo, W. H. Jo, W. K. Kim, S. H.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Self-Fulfillment and Psychological Happiness and Participation Duration Intention by Image of Aerobic Dance Instructor. *Korea Coaching Development Association*, 16(2), 25-36, 2014.
- [49] Y. I. Yun, J. Y. Kim, H. C. Joo, A Study on the Actual State of Adolescent Girl Students Physical Activity and Improvement Method.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52(4), 293-305, 2013.
- [50] K. T. Lee, The Effects of Nonverbal Communication of Professor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Korean Strategic Marketing Association*, 18(4), 125-140, 2010.
- [51] H. Y. Lee, J. W.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Program Instructor's Nonverbal Communication of Training Program for Public Officials, Participants' Sports Immersion and Their Continuos Participation Behavior.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51(4), 223-236, 2012.
- [52] C. Y. Park,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Self-Fulfillment and Psychological Happiness and Participation Duration Intention by Image of Aerobic Dance Instructor. 23(3), 47-60, 2012.
- [53] C. H. Jung, Y. H. Lee, H. S. Lee, Y. C. Jung, Sports Psychology Understanding & Application. *MedicalKorea*, 2009.
- [54] Stiff, James, Steve Corman, Bbob Krizek, and Eric Snider, Individual Differences and Changes in Nonverbal Behavior: Unmasking the Changing Faces of Deception. *Communication Research*, 21(5), 555-581, 1994.
DOI: <https://doi.org/10.1177/009365094021005001>
- [55] Leathers, Dale G., Nonverbal communication system,

Boston: Allyn and Bacon, 1976.

[56] Harrison, Randall P., Beyond Words: An Introduction to Nonverbal Communication, Prentice Hall, Inc, 1974.

[57] Tomkins, S. S. & McCarter, R., What and where are the primary affects? Some evidence for a theor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Monograph Supplement, 1(18), 119-158, 1964.

[58] Kraut, R. E., Social and emotional messages of smilings: An ethologic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539-1553, 1979.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37.9.1539>

[59] U. S. Yun, An Analytic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36(3), 65-82, 1998.

[60] Ericson, Bonnie, E. Allan lind, Bruce C. Johnson & William M. O'Bass, Speech Style and Impression Formation in a Court Setting: The Effects of 'Powerless' 'Speech'.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4(3), 266-279, 1978.
DOI: [https://doi.org/10.1016/0022-1031\(78\)90015-X](https://doi.org/10.1016/0022-1031(78)90015-X)

[61] Scherer, K. R., Vocal affect expression: A review and model for further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9, 143-165, 1986.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99.2.143>

[62] Mitchell, A. A., J. C. Olson, Are Product Attribute Beliefs the Only Mediator of Advertising Effects on Brand Attitud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8: 318-332, 1981.
DOI: <https://doi.org/10.2307/3150973>

[63] Heider, F.,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1958.
DOI: <https://doi.org/10.1037/10628-000>

[64] Festinger, L.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7.

[65] Elliot, A. J., P. G. Devine, On the Motivational Nature of Cognitive Dissonance: Dissonance as Psychological Discomf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382-394, 1994.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67.3.382>

[66] Oliver R.,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7(November): 460-469, 1980.
DOI: <https://doi.org/10.2307/3150499>

[67] Folkes, Valerie S., Consumer Reactions to Product Failure: An Attribution Approa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March): 398-409, 1984.
DOI: <https://doi.org/10.1086/208978>

[68] Gendolla, G. H. E., M. Koller, Surprise and Motivation of Casual Search: How Are They Affected by Outcome Valence and Importance?. Motivation and Emotion. 25(4): 327-349, 2002.
DOI: <https://doi.org/10.1023/A:1014867700547>

[69] H. A. Choi, J. H. Jung, The Effects of Sports Center Instructor` Attractiveness on the Psychological needs of participants.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53(5), 81-92, 2014.

[70] Arona. A., & Lewandowska. G., Psychology of Interpersonal attract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p7860-7862, 2001.

[71] George Lakoff & Mark Johnson,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1999.

[72] G. S. Kim, A sociolinguistic Approach to Male and Female English. Journal of Language Science, 7(1), 2000.

[73] Lakoff, R., Language and Woman's Place. Harper & Row, New York, 1975.

[74] Maltz, D. N., R. A. Borker, A culture approach to male-female miscommunication in Gumperz(eds). Language and Social Ident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고 의 석(Wi-Sug Ko)

[종신회원]



- 1995년 6월 : Indiana Univ., Sport Psychology (운동행동학 석사)
- 2000년 2월 : Florida Univ., Sport Psychology (스포츠심리학 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관심분야>

스포츠심리상담, 운동학습, 스포츠심리기술훈련

박 영 찬(Young-Chan Park)

[정회원]



- 2012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스포츠심리학전공 (체육학석사)

<관심분야>

스포츠심리상담, 스포츠심리기술훈련